

전일동향

전일대비 3.30원 상승한 1,421.20원에 마감

1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3.30원 상승한 1,421.2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90원 하락한 1,417.00원에 개장했다. 수입업체 결제 수요 등에 환율은 상승했다. 다만,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네고 물량 및 한-미 관세협상 경계감에 환율의 상단이 제한되며, 1,421.2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4.6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8.42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417.00	1426.00	1416.70	1421.20	1419.50
	엔화	942.37	954.05	940.75	942.99	-
	유로화	1657.08	1668.21	1655.41	1655.69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82	-5.4	-11.13	-20.59
	결제환율(수입)	-0.63	-4.51	-9.34	-17.18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달러화 반등에...1,42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25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21.20) 대비 0.45원 상승한 1,419.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국 지역은행 우려 완화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 및 달러화 반등에 보험권을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자이온 뱅코프,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대출 사기 혐의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한 뒤 백악관 해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이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 2023년 SVB 사태와 같은 지역은행 신용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낮다고 언급했다. 이에 뉴욕증시는 지역은행 위기 우려 완화에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며, 다우지수 +0.52%, 나스닥 +0.52%, S&P +0.53% 상승 마감했다. 반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0% 추가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, 중국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. 달러화는 미-중 긴장 완화에 따른 되돌림에 0.17 상승한 98.54를 기록했다. 한편 유로화는 프랑스 르코르뇌 총리가 총리직 유지에 성공했으나, S&P의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+로 강등해 약세를 보였다.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심리 회복 및 달러화 반등에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17.00 ~ 1425.33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4437.89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4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46190.61, +238.37p(+0.52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3.95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-52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